

2020년 6월 26일

가족 여러분께,

전례 없던 금 학년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과 학생들이 그 동안 학교 폐쇄와 원격학습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인내와 끈기, 그리고 유연성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구도 이토록 우리 일상에 타격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대유행병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며,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는 새로운 혼란이 왔습니다. 특히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혼란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저 역시 영어를 한 단어도 모른 채 유치원에 입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겪었을 어려움을 짐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DOE 전직원은 여러분의 가정 언어, 가정 문화와 전통-여러분과 자녀들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어준-을 존중하고 수용합니다. 저희는 여러분 자녀의 교육 경험이 안전하고 따뜻하며 지원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학교 건물에서 직접 가르쳤던 때나, 원격으로 지도하던 때나 늘 한결같습니다.

이제 여름 방학을 앞두고 다음 학년도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저희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년 수준에 맞는 내용을 배우는데 필요한 언어 지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지식과 도구로 무장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돕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자료, 전략 등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해 보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귀 자녀의 여름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 모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와 동시에, 자녀와 함께 계속해서 가정 언어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로 읽고, 쓰고, 질문하면, 자녀들은 두 가지 언어 모두로 성공적인 학업을 이룰 것입니다.

저희는 가을 학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학교 건물을 재개방 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 복귀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6월 30일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schools.nyc.gov/returntoschool2020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에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리처드 A. 카란자
교육감
뉴욕시 교육청